



영국과 호주의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와 함의

강성호 연구위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 퇴직연금이 중요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인식되는 과정에서 수익률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수수료 등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낮음
 - 이에 본고는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의 수수료 체계와 수준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로 구성되는 제도운영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되며, 운용관리수수료(0.05~0.6%)가 자산관리수수료(0.1%~0.5%)보다 다소 높음
 - 퇴직연금은 규모의 경제(대규모 사업장이 수수료 낮음), 장기계약(할인율은 3~15%), 개인추가 납입에 대한 특별 할인(수수료 면제 혹은 우대적용) 등을 고려하여 할인을 적용함
 - 수수료를 포함한 퇴직연금 총비용부담률은 2017년 기준 0.45%이며, 제도유형별로는 DC/기업형IRP형이 0.58%로 가장 높고, DB형이 가장 낮음
- 영국 DWP(Department for Work & Pension)는 2015년 4월부터 수수료 상한선을 0.75%(적립금 대비)로 설정하고, 계약형에 대해서는 컨설팅 수수료¹⁾를 금지하는 등 수수료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함
 - NEST 제도의 디폴트상품으로 Retirement Date Fund가 있으며, 여기에는 수익률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수수료는 낮아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은 높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이고, 수수료는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함에 따라 수수료 부담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호주는 퇴직연금의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Cooper Review 연금개혁 과정에서 수수료가 저렴한 새로운 형태의 단순화된 디폴트옵션을 제안함
 - 호주 금융투자협회(Financial Service Council)에 의하면, MySuper의 평균수수료가 2009년 0.92%에서 2013년 0.73%로 0.19%p 낮아졌으며, 이에 반해 슈퍼에뉴에이션 펀드(슈퍼펀드)는 1.12% 수준임
-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현행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수수료 결정에 있어 ①수수료를 구성하는 세부항목들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②취약계층의 퇴직연금 가입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수수료 감면을 강화하고, ③디폴트펀드 등 수익률과 수수료를 동시에 고려하는 상품 개발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퇴직연금이 중요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인식되는 과정에서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수수료 등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낮음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1.88%로 OECD 평균 6.6%²⁾와 비교하여 매우 낮아 수익률 제고에 대한 관심은 높음
 - 2012년까지 퇴직연금수익률은 4~5%대였지만 2013년 이후 2%대에서 2017년 1.88%로 감소함
-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고이율이 보장되었을 때는 수수료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지만, 2013년 이후 금리 하락과 함께 수수료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함³⁾
 -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퇴직연금 사업자평가사업 등을 통해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⁴⁾

■ 퇴직연금 운용은 일반적으로 수익률을 통해 평가되는데,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이 고려된 실질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가입자의 체감 수익은 더 낮을 것이라는 점에서 수수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총비용부담률은 0.45%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1.88%의 연간수익률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총비용부담률은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총비용(수수료(운용·자산관리)+펀드비용⁵⁾)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나누어 산출됨

■ 이에 본고는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의 수수료 체계와 수준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컨설팅 수수료는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수수료임

2) 2017년 기준 OECD 33개 국가의 퇴직연금 가중평균수익률임(OECD(2018), *Pension Market in focus 2018*, p. 19)

3) 근로복지공단, 2015년 퇴직연금 동향보고서, p. 87(김성일, 퇴직연금수수료 합리화 방안 참조)

4) 고용노동부(2018.11.9), 「2018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결과 발표 참조

5) 펀드비용은 펀드보수(fee)와 펀드수수료(commission)로 구성되며 자산운용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임

2.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수료 현황 및 평가



가. 퇴직연금 수수료 현황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로 구성되는 제도운영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됨

-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되며,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부담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 운용관리업무는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計理)⁶⁾,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 등이 해당됨
 - 자산관리업무는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급여의 지급 등이 해당됨
- 기타 수수료는 중도해지, 계약이전, 가입자 교육에 따른 수수료이나 현재 대부분 부과되지 않음⁷⁾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모두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⁸⁾(퇴직급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19조 제2항)
 - 다만, 본인부담분과 퇴직 후 적립된 개인형 IRP의 적립금 운용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부담함

〈표 1〉 제도유형별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 주체

제도유형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DB형	사용자 (적립금에서 차감 또는 별도납입)	좌동
DC형/기업형 IRP	사용자(별도납입)	좌동
개인형 IRP	가입자(적립금에서 차감)	좌동

자료: 한국투자증권(2014), 퇴직연금실무해설서

■ 퇴직연금 수수료를 유형별로 보면 운용관리수수료는 0.05~0.6%, 자산관리수수료는 0.1%~0.5%로 운용관리수료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모두 적립금 규모에 따른 할인효과로⁹⁾ 인해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는 감소함

6)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

7) 한국투자증권(2014), 퇴직연금실무해설서, p. 258

8) 2013년 7월 25일까지는 DC형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수수료는 노사협약에 의해 가입자에게도 부담될 수 있었음

9) 2014년 기준 미국 401(k) 플랜의 경우(평균 수수료율 0.39%)도 자산규모가 클수록 수수료율은 낮음. 즉, 자산규모 100만~1,000만 달러의 경우 1.14%, 10억 달러 이상의 대형 플랜의 경우 0.25%임

- 이러한 현상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로 볼 수 있으나,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저해할 우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을 시사함

〈표 2〉 적립금 규모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수수료율 현황

(단위: %)

수수수료유형 \ 적립금 규모	~ 5억	~ 50억	~ 500억	~ 1,500억	전체
운용관리	0.1~0.6	0.1~0.45	0.1~0.45	0.05~0.4	0.05~0.6
자산관리	0.1~0.5	0.1~0.5	0.1~0.45	0.1~0.45	0.1~0.5

주: 1) DB, DC(사용자부담액), IRP(퇴직급여를 이전한 금액)를 통합하여 수수료 범위를 제시한 것임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7. 18)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

■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은 규모의 경제 외 장기계약, 개인추가 납입에 대한 특별 할인도 존재함

- 2012년 10월 도입된 장기계약 할인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시장점유율을 공고히 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 및 사용자에게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¹⁰⁾
 - 할인 기준 및 할인율은 사업자별·계약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2년차부터 5년차까지 적용되고 할인율은 3~15% 수준(일반적으로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수준)
- IRP의 경우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우대적용을 통해 할인되는 경우도 있음¹¹⁾
 -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가입한 경우, 연금지급 시 등에 수수료 우대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음
 - IRP 적립금 1억 원 미만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는 0.17%(면제하는 사업자를 제외 시 0.19%), 자산관리수수료는 0.20%(면제하는 사업자를 제외 시 0.22%) 할인됨

■ 수수료를 포함한 퇴직연금 총비용부담률은 2017년 기준 0.45%이며, 제도유형별로는 DC/기업형IRP가 0.58%로 가장 높고, DB형이 가장 낮음

- 수수료 외 비용인 펀드비용은 펀드보수(fee)¹²⁾와 펀드수수료(commission)¹³⁾로 구성되는데 이는 실적배당형에서 펀드 구입 시 드는 추가적 비용이므로 전체 비용에서 10%이하여서(원리금보장형에 90% 투자) 퇴직연금의 총비용은 대부분 수수료로 볼 수 있음
-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도유형별로는 DB형의 총비용부담률이 낮는데, 이는 적립금 규모에 따른 수수료 할인, 펀드 편입 비중이 낮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¹⁴⁾

10) 근로복지공단, 2015년 퇴직연금 동향보고서, p. 87(김성일, 퇴직연금수수료 합리화 방안 참조)

1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12. 17), “금융꿀팁 200선 - ⑤ 연말연시, 연금자산 이렇게 챙겨보세요”

12) 펀드보수는 판매·운용·수탁·사무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부담됨

13) 펀드수수료는 펀드 매입 시 판매수수료, 환매 시 발생하는 환매수수료가 있으며,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 판매회사, 투자기간 또는 납입회수별로 차등하여 부과될 수 있음

〈표 3〉 제도유형별 총비용부담률 현황

(단위: %)

구분	DB	DC/기업형IRP	개인형IRP	전체
2015년	0.46	0.62	0.40	0.49 (2.15)
2016년	0.38	0.62	0.46	0.45 (1.58)
2017년	0.40	0.58	0.44	0.45 (1.88)

주: 1) 적립금 가중평균값 2) ()안은 연간 투자수익률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나. 퇴직연금 수수료 평가

■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수료의 절대액 수준은 높지 않으나 포괄적 수수료 체계의 문제 등 수수료 체계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현재 퇴직연금 수수료는 세부 구성항목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포괄적 체계로 되어 있어 운영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임
-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수수료 할인은 있으나, 중소기업, 저소득 IRP 가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할인이 취약하여 추가적 가입 유인이 약함
- 현행 수수료 산정이 적립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절대액은 증가하는 구조임

3. 영국과 호주의 퇴직연금 수수료 평가¹⁵⁾



가. 영국의 퇴직연금 수수료 현황과 평가

■ 영국 DWP(Department for Work & Pension)는 2015년 4월부터 수수료 상한선을 0.75%(적립금 대비)로 설정하고, 계약형에 대해서는 컨설팅 수수료¹⁶⁾를 금지하는 등 수수료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함¹⁷⁾

14) 근로복지공단, 2017 퇴직연금연구센터 퇴직연금 포럼 운영보고서(김재현,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진단과 개선방안)

15) 영국과 호주는 퇴직연금제도가 가장 발달한 대표적인 벤치마킹 국가임

16) 컨설팅 수수료는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수수료임

17)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2017), "Pension Charges Survey 2016: Charges in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schemes," p. 15

- 수수료 상한인 0.75%는 적격 DC형 퇴직연금(qualifying DC workplace pension schemes, 이하 적격DC형제도)의 디폴트상품에 적용됨
 - DC형에서 디폴트상품의 선택이 90%여서 수수료 상한선은 전체수수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적격DC형제도에 디폴트상품이 없는 경우 가입자의 80%가 투자한 펀드를 디폴트로 간주하여 상한선을 적용함¹⁸⁾

〈표 4〉 제도유형별 영국 퇴직연금의 연간 수수료(Annual Ongoing Charge) 현황

(단위: %)

기업규모	적격(Qualifying schemes)		비적격(Non-qualifying schemes)	
	계약형	신탁형	계약형	신탁형
1~5인	0.72	0.72	0.94	0.92
6~11인	0.69	0.66	0.92	0.92
12~99인	0.65	0.61	0.88	0.87
100~999인	0.56	0.44	0.78	0.66
1,000인 이상	0.45	0.37	0.86	0.61
전체	0.54	0.38	0.86	0.70

주: 수수료(Annual Ongoing Charge)는 적립금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며, 여기서는 AMDs¹⁹⁾, consultancy charges, initial and trail commission and flat fees로 구성됨

자료: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2017), "Pension Charges Survey 2016: Charges in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schemes," p. 46

- DWP(2017)에 의하면 영국의 수수료는 비적격제도 중 계약형 전체와 소규모 사업장의 신탁형(기금형)에서 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한선(0.75%)을 적용받는 적격제도에서 계약형의 수수료는 0.54%, 신탁형은 0.38%으로 나타남
 - 반면 수수료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 비적격제도에서 계약형의 수수료 평균은 0.86%, 신탁형은 0.70%로 나타났으며, 계약형은 모두 수수료 상한을 넘었으나 신탁형의 경우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서는 상한선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됨
- 2015년 4월에 적격DC형제도 중 계약형에 대해 가입자에게 받던 컨설팅 수수료를 금지하였으며,²⁰⁾ 2016년 4월부터는 기금형까지 확대함²¹⁾

■ 영국의 NEST²²⁾ 제도에는 자동가입 근로자를 위한 디폴트상품으로 Retirement Date Fund가 있으며, 여기에는

18) 근로복지공단, 2017 퇴직연금연구센터 퇴직연금 포럼 운영보고서(김재현,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진단과 개선방안)

19) Active Member Discounts(AMDs)로 수수료 할인 부분임

20)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대해서만 컨설팅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됨(근로복지공단, 2017 퇴직연금연구센터 퇴직연금 포럼 운영보고서(김재현,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진단과 개선방안))

21)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2017), "Pension Charges Survey 2016: Charges in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schemes," p. 15

수익률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수수료는 낮아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됨

- NEST Retirement Date Funds의 자산규모는 17억 파운드²³⁾(약 2조 4천억 원), 수익률 목표는 소비자 물가상승율에 추가 3%(임의적임)로 하고 있음
- 5년 연평균 수익률은 1.9% ~ 11.4% 범위에 있으며, 수수료 수준은 전체 적립금 기준 50 bp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5〉 NEST Retirement Date Funds의 수수료 등

자산규모	수익률 목표	5년 연평균 수익률	수수료율
17억 파운드 (약 2조 4천 억 원)	CPI + 3% (임의적)	1.9% ~ 11.4%	- 투자자산대비 3 bp - 보험료대비 180 bp - 전체 적립금대비 50 bp

자료: OECD Pensions Outlook 2018, p. 98를 기초로 재정리함

- 향후 NEST 적립금규모가 충분히 쌓일 경우 관리수수료만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여금 운용 수수료인 1.8%는 향후 면제될 것으로 예상됨²⁴⁾

■ 종합적으로 보면 영국은 높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이고, 수수료는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함에 따라 수수료 부담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²⁵⁾

- 영국의 연간 명목수익률을 보면 금융위기 이전인 2002년~2008년 동안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변동이 심하였으나, 이후 2016년(13.7%)까지 두 자리 수익률을 보이는 등 수익률이 양호한 편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영국은 수수료 규제 조치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음
 - 연간수수료(Annual Management Charges, AMC²⁶⁾)는 2002년 0.79%에서 2016년 0.57%로 14년 동안 22%p 감소함
 - 수수료 인하가 가능했던 주요 요인으로 관리자산의 증가, 사업자의 백오피스 시스템 현대화, 정부 간섭²⁷⁾에 따른 수수료 벤치마크 인하 등임.
- 한편, 수수료(fees and charges) 인하의 이론적 배경에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연금급여에 영향을 미치며, 저소득 가입자의 급여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이를 뒷받침함²⁸⁾

22) DC형 퇴직연금으로 자동가입(Opt-Out)을 전제로 2012년부터 실시됨

23) 영국 파운드 환율은 1,421.75원(2019.1.5일 기준)

24) 근로복지공단, 2015년 퇴직연금 동향보고서, p. 204(영세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운용과 시사점)

25) OECD Pensions Outlook 2018, p. 98

26) AMC에는 판매비용, 제도운영 및 자산관리 비용이 모두 포함됨

27) 연금노동부(DWP)와 금융감독원(FCA)가 1% 이하로 수수료를 설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대상 금융기관의 80% 이상이 1% 이하의 수수료를 설정하게 됨

28) OECD Pensions Outlook 2018, p. 80

- OECD(2018)에 의하면 퇴직연금 수수료율이 1.5%(0.75%, 0.5%) 감소 시 적립금은 약 29.9%(16.5%, 11.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비용 구조가 연금적립액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²⁹⁾

〈표 6〉 영국의 연도별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

연도	명목수익률	명목수익률 (수수료 적용 후)	순수익률 (수수료 및 물가상승률 적용)	수수료(AMC)
2002	-13.3	-14.1	-15.8	0.79
2004	12.1	11.3	9.7	0.79
2006	11.4	10.6	7.6	0.76
2008	-11.4	-12.1	-15.1	0.73
2010	13.6	12.9	9.3	0.69
2012	10.5	9.9	7.3	0.65
2014	5.1	4.6	4.1	0.55
2016	13.7	13.1	11.5	0.57

자료: Pension Savings-The real return 2018 Edition, Better Finance, EC

나. 호주의 퇴직연금 수수료 현황과 평가

- 호주는 퇴직연금의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Cooper Review 연금개혁 과정에서 수수료가 저렴한 새로운 형태의 단순화된 디폴트옵션을 제안함³⁰⁾

- 이를 통해 호주는 수수료를 표준화한 MySuper펀드가 2013년에 도입되었으며, 기존 슈퍼에뉴에이션의 디폴트펀드들을 대체함³¹⁾
 - MySuper펀드는 투자성과, 보장범위 등에 따라 비용이 차별화되나, 불필요한 수수료가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을 간결하게 구성함으로써 저비용구조로 설계됨
- 이로 인해 가입자들은 퇴직연금 투자상품 간 비교가 더 용이해졌으며, 슈퍼에뉴에이션 펀드(수퍼펀드)간 경쟁을 유도하여 수익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
 - APRA는 MySuper에 대한 모든 정보(운용 수수료, 데이터 비용, 해당 펀드의 경로)를 수집하여 타 연금펀드와의 비용·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실적 일람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금산업 내의 투명성을 높 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³²⁾

29) better workplace pensions: a consultation on charging; OECD Pensions Outlook 2018, p. 81을 참조함. 분석가정으로 보험료는 임금의 10%, 연간임금상승률은 3.8%(인플레이션 2%, 생산성증가를 1.8%), 납부기간은 40년, 투자수익률은 7%임

30) 근로복지공단, 2017 퇴직연금연구센터 퇴직연금 포럼 운영보고서, p. 73

31) 근로복지공단, 2015년 퇴직연금 동향보고서, p. 87(박희진, 호주 퇴직연금제도와 시사점 참조)

■ MySuper 도입 후 비용절감 노력으로 기존의 수퍼펀드에 비해 MySuper펀드의 수수료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³³⁾³⁴⁾

- 호주 금융투자협회(Financial Service Council)에 의하면, MySuper의 평균수수료가 2009년 0.92%에서 2013년 0.73%로 0.19%p 낮아졌으며, 이에 반해 수퍼펀드는 1.12% 수준임

■ MySuper Industry level의 수수료는 Target Date Fund(TDF)와 마찬가지로 Lifecycle 형태로 운영되며 수익률을 고려할 때 체감수수료 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MySuper의 자산규모는 4,740억 호주달러³⁵⁾(약 377조 원), 수익률 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5년 연평균 수익률은 6.6% 범위에 있으며, 수수료 수준은 전체 적립금 기준 50 bp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수수료 등 비용이 높더라도 수익률이 높다면 수수료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음
 - Parwada and Faff(2005)에 의하면 호주에서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때 비용 측면보다 최근 5년간 시장 벤치마킹 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렸는지를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음을 주장함³⁶⁾

〈표 7〉 MySuper - Industry level의 수수료 등

자산규모	수익률 목표	5년 연평균 수익률	수수료율
4,740억 호주달러 (약 377조 원)	CPI	6.6%	- 투자자산대비 49 bp - 가입자당 연간 행정수수료(administration fee)는 87호주달러 - 전체 적립금대비 50 bp

자료: OECD Pensions Outlook 2018, p. 98를 기초로 재정리함

32) 이태호·김원식·김재현·신성환(2011), 영국의 장기저축, 투자장려 정책 및 시사점: 퇴직연금 단일화 필요성 및 효과와 주요 해외사례 연구, 고용노동부

33) 근로복지공단, 2017 퇴직연금연구센터 퇴직연금 포럼 운영보고서, p. 15

34) 근로복지공단, 2015년 퇴직연금 동향보고서, p140 (박희진, 호주 퇴직연금제도와 시사점)

35) 호주달러 환율은 795.42원(2019.1.5일 기준)

36) 김재현(2010), 금융기관의 퇴직연금사업 효율성 연구, 보험금융연구 60권, 보험연구원, pp. 73~102

4. 결론 및 시사점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수료의 절대액 수준은 높지 않으나, 제도내실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수수료 체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현재 퇴직연금 수수료는 포괄적 형태로 결정되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세부항목들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운영관리, 자산관리 등 통합적 및 획일적으로 수수료가 결정되므로 가입자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므로 세부항목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수료가 책정될 필요가 있음
- 둘째, 퇴직연금 가입유인 제고를 위해 NEST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인형 IRP 가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에 전반적으로 총비용부담률은 인하되었지만 개인형 IRP에서는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있음
 - 특히, IRP 가입자는 수수료 전액을 직접 부담하므로 수수료로 인해 추가 가입 유인이 줄어들고 퇴직소득 또한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 부담분에 대한 수수료 감면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실적배당형에 투자할수록 펀드비용 발생 등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익률 제고라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영국 Retirement Date Fund, 호주 MySuper와 같이 펀드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폴트옵션 도입을 검토하여 수수료 부담을 수익제고를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kiri](#)